

지식 형성과 사유의 장(場)으로서의 소설의 가능성

- 〈삼한습유〉를 중심으로

김경미*

— <차 례> —

1. 서론
2. 19세기 소설의 동력(動力)으로서의 지식
3.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 소설의 역할
 - 1) 새로운 지식 형성의 예, 〈삼한습유〉
 - 2) 새로운 지식 형성 장으로서의 소설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19세기 소설의 동력의 하나로 지식에 주목하고 소설 속에 드러난 지식의 다양한 양상들을 살핀 뒤 사유와 지식 형성의 장으로서 〈삼한습유〉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세기에는 〈삼한습유〉, 〈옥선몽〉과 같은 한문소설뿐만 아니라 〈명행정의록〉 같은 국문장편소설, 〈두껍전〉 같은 우화소설 등에 두드러지게 지식이 수용되어 있다. 이는 19세기에 지식 정보의 유통과 정리가 폭넓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글의 관심은 이러한 지식들이 소설 속에 얼마나 수용되었는가 아니라, 소설 그 자체가 지식을 수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장이었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소설이 19세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고 사유하는 장(場)이 되었고, 지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삼한습유〉를 통해 입증하였다.

〈삼한습유〉는 열녀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열녀의 재가라는 새로운 플롯을 창출했다. 이 새로운 플롯에 설득력을 주는 것은 지식에 근거한 논리였다. 그 점에서 〈삼한습유〉에 등장하는 지식은 새로운 플롯을 창출하게 해 준 동력이었다고

*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HK교수.

평가할 수 있다. <삼한습유>는 중세의 지식으로 중세의 주요 이념을 내파(內破)한 예를 보여준다. 이는 소설이 지식과 만나면서 이루어낸 것으로 19세기 문학의 중요한 성취라 할 수 있으며, 근대소설 형성의 저류를 이룬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삼한습유>, 열녀, 지식, 지식 형성, 한문소설, 19세기, 근대

1. 서론

이 글은 김소행(1765~1859)의 <삼한습유>를 통해 19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나아가 19세기 문학의 동력(動力)과 전변(轉變)을 보기 위해 시도된다.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는 소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19세기에도 지속되어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유형의 소설들이 창작되었다. <삼한습유>를 비롯한 <옥선몽>, <옥수기>, <옥루몽>등의 작품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한문(장편)소설 창작이 이루어지지만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소설사는 전반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는 19세기의 역사 전개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19세기는 동질적인 시대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800년 정조 사후로부터 시작한 전반기와 1860년의 북경사변, 1862년의 농민항쟁, 1894년의 갑오개혁, 개항 등으로 이어지는 후반기는 연속적인 측면에서 보기 어려운 단절의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설사의 경우를 봐도 소설의 출판과 유통 환경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로 세책본과 방각본의

1)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는 김정미,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모색』, 보고사, 2011에서 다루었다.

출현을 통해 소설이 상품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달리 매체의 확장, 독자의 확대, 소설의 대중화로 부를 수 있겠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세책본과 방각본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방각본의 경우 개별 작가보다 출판을 담당한 상인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²⁾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도 20세기 초에 와서 방각 출판되는 한편, 구활자본으로도 출간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19세기 후반의 경향이 20세기 초로 이월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³⁾ 그러나 필자는 소설과 지식 형성의 문제를 통해 19세기와 20세기 전반의 연속성을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연속성은 직접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저류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 논문 전반에 걸쳐 유지될 것이다.

다음은 동력의 문제이다. 19세기 문학의 동력과 전변을 문제 삼는 것은 19세기 문학을 움직여 간 동력, 즉 힘 또는 에너지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가 소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즉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가를 묻기 위해서이다. 물론 19세기 문학 또는 소설의 동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19세기 문학을 추동해 나간 동력이 있었던가, 있었다면 무엇을 19세기 문학의 동력으로 볼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 동력을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인가, 동력은 어디를 향해 움직였던가, 더 나아가서는 근대를 점화할 만한 동력이었는가 하는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류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고전문학연구』34, 2008, 253면,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27, 2009, 208면.

3) 방각본으로 출간된 소설들이 20세기 초 활판본으로 다시 출판되고,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은 완판 26장본이 1908년, 33장본이 1906년, 84장본이 1908년에 출간되었다. 전상욱, 「완판 춘향전의 변모양상과 의미」, 『판소리연구』26, 201~228면.

이 글은 19세기 소설사를 새롭게 움직여간 동력으로 지식에 주목한다. 그리고 지식을 수용해서 새로운 사유의 장, 담론의 장을 만들어낸 예를 <삼한습유>를 통해서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삼한습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지식의 내용과 성격이 많이 해명되었다. 이 글에서는 <삼한습유>에 대해 달리 접근한다. 앞서의 연구들처럼 지식에 주목하지만 그 내용과 성격보다는 그것을 통해 소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2. 19세기 소설의 동력(動力)으로서의 지식

19세기 소설의 동력으로 지식을 주목하는 것은 19세기 소설에 지식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소설이 사유의 장, 담론의 장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식의 정리와 유통은 19세기의 중요한 문화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지식이란 자연과 세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정보 및 체계화된 앎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그 단계에 준하는 지식 정보가 형성되고, 전수되며, 권력이 개입된다. 그러나 조선의 19세기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지식 형성과 전수와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이전에 축적된 지식의 체계에 청나라 및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들어온 지식과 서학(西學)이 더해져서 지식을 정리, 분류하는 작업들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행해졌다. 백과전서적 저술의 등장이 그런 예이다. 북학(北學)도 이 시기 새롭게 형성된 지식 체계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설도 이러한 지식을 수용함은 물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장으로 역

4) <삼한습유>에 대한 연구로는 조혜란, 서신혜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들 연구는 <삼한습유>의 서사적 특징, 전고, 백과전서적 지식의 내용 등을 다루었다.

할했다. 그러나 소설의 지식 수용 양상이 동일하지는 않다.

19세기 소설에 보이는 지식은 유가나 도가를 비롯한 제자백가의 사상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천문, 지리, 초목에 대한 과학 지식,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지식, 단순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이러한 지식이 등장하는 소설도 한 유형에 그치지 않고 <두견전> 같은 우화소설에서부터 판소리계소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삼한습유>, <옥선몽>, <옥수기>, <옥루몽> 등의 한문장편소설, <명행정의록> 같은 국문장편소설에까지 걸쳐 있다. 그러나 지식이 등장하는 방식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백과전서적으로 지식이 전개되는 작품은 <옥선몽>이다.⁵⁾ <옥선몽>에서 전개되는 지식의 내용은 “크기와 넓이(大小長短之體)”, “땅의 둘레(地之周廣 幾里幾步)”, “천하의 가장 큰 것과 작은 것(天下至大者 何物, 至小者 何物)”, “사람의 골절과 터럭의 수(人之骨節幾何, 毛數幾何)” 등의 문제로부터 신선술, 불도, 차의 종류, 차를 끓이는 법, 오음(五音), 도학(道學)의 연원, 이단, 구경(九經)의 종지(宗志)와 강령(綱領), 문장정식(文章程式), 서법(書法), 자음(字音), 꿈 등으로 마치 백과사전을 보고 있는 듯한 내용이 전개되고, 선경, 도경, <황정경>, <원각경>, <유마경>, <능엄경>⁶⁾, <전등록>, <다경(茶經)>⁷⁾ <논어> 등이 직접 인용되고 있

5) <옥선몽>에서 전개되는 지식의 내용과 전거, 의미 등에 대해서는 김경미, 『옥선몽의 성격과 작가의 소설의식』, 『국어국문학』109, 1993, 서경희, 『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6) “<능엄경>에서는 ‘밝은 것은 해에게 돌려보내고 어둠은 후월에 돌려보내며 통함은 문이나 창으로 되돌려 보내고, 막힘은 담으로 돌려보내며, 인연은 분별에 돌려보내고 비어있음은 공으로 돌려보내고, ...’이것이 이른바 팔환이다. ...<유마경>에서 ‘이 몸은 순간순간 불현듯 소멸되는 번개 같은 것이다’라고 했으며, <능엄경>에서 ‘있는 듯하지만 있지 않고 다한 듯하면서도 다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무리를 비상비비상처라 한다.’라고 했다.(楞嚴經曰, 明還日輪, 暗還黑月, 通還戶隔, 塞還牆宇, 緣還分別, 頑虛還空, ...此所謂八還者也. 維摩經云, 是身如電, 念念不住. 楞嚴經云, 如存不存, 如盡不盡, 如是一類名非想非非想.)” <옥선몽>, 김기동(편), 『필사본고전소설

다. 이 같은 지식은 주로 대화를 통해 전개되는데, 여기에 대해 서경희는 대화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전개되기보다는 출처를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나열해서 광범위한 지식의 폭을 드러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⁸⁾ 이는 <옥선몽>에서 전개되는 지식에 대한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소설이 이러한 지식을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19세기에 나온 『오주연문장전산고』, 『임원경제지』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지식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분류, 체계화, 또는 정리와 같은 당대의 관심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선몽>은 이러한 지식의 전달 외에도 전문옥이 과거시험 답안으로 제시한 ‘패설론’ ‘오유선생부(烏有先生賦)’ 등을 통해 소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패설론’은 소설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소설에 대한 긍정, 소설의 연원, 종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소설의 가치를 긍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개되는 소설론이 획기적인 소설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설이라는 장을 통해 한 그동안 조선사회에서 형성되어온 소설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소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한습유>의 경우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토론을

전집』3, 아세아문화사, 16~17면.

7) “소저가 “그대와 차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하니 노파가 말했다. “좋지요.” 소저가 말했다. “어떤 색이 제일 좋고, 어떤 종류가 그 다음인가?” 노파가 말했다. “옥우의 <다경>에 이르기를, 자주색이 제일이고 녹색이 그 다음이고, 순으로 된 것이 제일이고, 잎으로 된 것은 그 다음이지요.” …… 소저가 말했다. “어디서 난 것이 제일 좋은가?” 노파가 말했다. “양자강 가운데 찬 물이 있는데, 천하의 차를 끓이는 것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小姐曰, 請與子論茶, 可乎? 婆曰, 諾. 姐曰, 甚色爲上? 甚品爲次也? 婆曰, 陸羽茶經云, 紫者爲上, 綠者爲次, 筍者爲上, 芹者爲次. …… 何地所產爲第一品也? 婆曰, 楊子江中有冷水, 爲天下點茶第一品也. ……)”, <옥선몽>, 26~27면.

8) 서경희, 앞의 글, 151면.

통해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고 수정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식은 유교, 불교, 도교, 심성론, 천지도수⁹⁾, 죽음, 귀신의 문제, 인간의 육체, 장기, 수태과정, 정육의 문제, 남녀음양의 이치 등에 관한 것이다.¹⁰⁾ 즉 인간을 포함하여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이 설명의 대상이고, 논란의 대상인 것이다. <삼한습유>가 주목되는 것은 지식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념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포퓰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삼한습유>에서 전개되는 지식들 역시 독창적인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열녀전』, 『황제내경』 등에서 인용된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향량이 죽은 뒤에 천상에서 전개되는 회의에는 유향의 『열녀전』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성인물들이 대거 등장한다.¹¹⁾

9) “옛말에 따르면 하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선야천(宣夜天), 개천(蓋天), 혼천(渾天)이 그것입니다. 선야천설은 증명할 길이 없고 주비(周髀) 개천설은 살펴보니 유실된 내용이 많고, 오직 혼천설만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혼천설에 따르면 하늘은 계란 같고 땅은 계란 노른자 같으니, 하늘은 크고 땅은 작은 것입니다. 하늘의 표면 안쪽에 물이 있으니, 하늘과 땅이 각각 기운을 받아 섰으며, 물을 이고 떠 있는 것이지요. 하늘이 도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가 도는 것과 같아요. 하늘에는 본래 도(度)가 없습니다. 하늘의 둘레를 365도 1라고 하는 것은 해의 하루 낮과 밤 궤도의 넓고 좁음에 따라 부른 이름이지요. 왜냐하면 해가 운행하는데 365일 외에 또 1일을 더 가면 1년이고, (일년에) 하늘을 한 바퀴 도는데, 하루에 가는 것만큼을 1도(度)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나누어 보면 365와 1도가 됩니다. 별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다섯 별의 궤도는 모두 그 도를 가지고 재는데, 요임금이 회씨와 화씨에게 명한 것이 이것입니다.(古之言, 天者有三, 曰宣夜天, 曰蓋天, 曰渾天. 宣夜無所徵信周髀, 蓋天考驗多失, 獨渾天爲近是. 其言曰, 天如鷄卵, 地如卵黃, 天大地小, 天表裡有水, 天地各乘氣而立, 載水而浮, 天轉如車轂之運. 天本無度. 周天三百六十五度四分之者, 因日一晝夜所躔濶狹而名者也. 蓋日之行也, 三百六十五日之外又行四分之, 一年而一周天, 以一日所行爲一度, 故分爲三百六十五度四分之. 星辰之相去月, 五星之行躔, 皆以其度度焉. 堯之命羲和是已.)”, 『삼한습유』(조혜란역), 200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90~91면.

10) 조혜란, 『삼한습유연구』, 178면.

11) 한 가지 예만 들어본다. “조금 있으니 여러 나라의 현명하고 지혜롭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어질고 밝고 곧고 미덥고 의롭고 매서운 결의가 있고 맑고 착하고 자애롭고

몽유록에서도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며, <왕회전>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의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삼한습유>는 몽유록의 이 같은 전통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삼한습유>는 등장하는 인물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 절개가 있는 여자, 모습이 추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위의 한문소설과 형태는 다르지만 국문소설이나 판소리에든 지식이 수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이 19세기 소설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준다. 국문소설의 경우 장편소설인 <명행정의록>과 <두껍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명행정의록>은 지식의 수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작품이다.¹²⁾ <명행정의록>에는 177수 가량의 한시가 삽입되어 있으며, 지리, 도의 수련, 득도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기존 지식을 수용한 것이 많다. <명행정의록>에 삽입된 한시 일부는 기존의 시집이나 유명시를 수용한 것으로, 『산당사고(山堂肆考)』, 『성의백문집(誠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두 왔는데, 초나라에는 장왕(莊王)의 변희, 무왕부인(武王夫人) 등만, 성왕부인(成王夫人) 정무, 평왕부인(平王夫人) 백영, 자발의 어머니, 손숙오의 어머니, 강을의 어머니, 백공의 처 정희, 오릉자중의 처, 노래자의 처, 접역의 처, 초나라 시골에 사는 말 잘 하는 아내가 오고, 제(齊)나라에서는 환공부인(桓公夫人) 위희, 영공부인(靈公夫人) 중자, 효공부인(孝公夫人) 맹희, 위왕부인(威王夫人) 우희 연지, 양왕부인(襄王夫人) 군왕후, 전직자의 어머니, 장강(莊姜)과 보모(保母), 의계모, 왕손씨(王孫氏)의 어머니, 관중의 첩 정, 제나라 재상의 마부의 처, 피나무를 상하게 한 연의 딸, 섭정의 누이, 동손부인(東孫婦人), 서오, 무염, 흑부리 여자, 버림받은 여자들은 모두 모습이 누추하다고 하다면서 오려고 하지 않았다.(須臾, 列國夫人之賢智辯慧, 仁明貞信, 義烈淑善, 慈惠婉好者畢至。於楚則莊王樊姬, 武王夫人鄧曼, 成王夫人鄭晷, 平王夫人伯贏, 子發母, 孫叔敖母, 江乙母, 白公妻貞姬, 於陵子終妻, 老萊子妻, 接輿妻, 楚野辯妻。於齊則桓公夫人衛姬, 靈公夫人仲子, 孝公夫人孟姬, 威王夫人虞姬媚之, 襄王夫人君王后, 田稷子母, 莊姜及保母, 義繼母, 王孫氏母, 管姜媾, 齊相御妻, 傷槐衍女, 聶政婦, 東孫夫人, 徐吾, 無鹽, 宿瘤孤逐女, 皆以形陋不肯來。), 『삼한습유』(조혜단역), 177~178면.

12) <명행정의록>과 지식의 관련 양상은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意伯文集』을 비롯해 『명시종(明時綜)』이라는 고급한 시선집 수록 작품들을 수용한 것이다.¹³⁾ 이는 작가가 삼입 한시를 선별함에 있어 사회적으로나 문학적 수준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문예물로서 <명행정의록>이 스스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⁴⁾ 등장인물의 지리적 이동을 따라가면서 지리에 대한 서술이나 선약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 이것은 『해내기관(海內奇觀)』에서 인용된 것이며, ‘친안친존’이라는 초월계적 존재의 수련, 득도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단학서를 수용한 것이다.¹⁵⁾ 지리에 대한 서술이 들어간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결과로 보이며, <명행정의록>은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관심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여성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바 이는 여성 독자들의 지식에 대한 관심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18, 19세기에 활발하게 기록된 연행록이 여성을 위해 국문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문으로 창작된 <두껍전>이나 판소리계소설에서도 지식이 중요하게 수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역시 <옥선몽>, <삼한습유> 같은 한문소설과는 다른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지식 수용의 양상에도 차이가 있다. <옥선몽>, <삼한습유>는 천문이나 문장, 유·불·도,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지식이 주를 이룬다면, <두껍전>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나열되고 있으며,¹⁶⁾ <변강쇠가>에도 강쇠가 병이 든 뒤 의원을

13) 그런데 한시를 삼입한 경우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한자음을 쓰고 한글 번역문을 함께 수록했다. <호연재유고>에서 보듯 이는 여성들이 한시를 향유하는 방식이었다.

14) 서정민, 위 글, 88~89/93면.

15) 서정민, 위 글, 94/108면.

16) 장예준, 『19세기 소설의 ‘지식’ 구성의 한 양상과 ‘지식’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55,

불러 침약(鍼藥)을 의논하는 부분을 보면 약이 계속 나열되고 있다.

지식이 제시되는 양상은 각각 다른데 크게 대별해 보면 <삼한습유>와 같이 의론적 대화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 <옥선몽> 같이 의론적 대화를 통해 소설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면서도 지식 자체를 백과전서적으로 현시하는 경우, <명행정의록>의 경우와 같이 당시 독자들에게 새로운 교양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¹⁷⁾, <두껍전>처럼 인물의 우월성을 따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9세기 소설에 지식이 수용되는 경향은 19세기에 이르러 영정조시대 실학의 성과가 집대성되고 경화세족들에 의해 각종 총서류 저작들이 등장하는 등 지식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이유원의 『임하필기』, 홍석주의 『연천저서』 및 홍길주, 홍경모 등의 저작들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정보들이 정리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방각본으로 기존 지식층의 문화가 요약적으로 재생산되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요취선(史要聚選)』, 『간독정요(簡牘精要)』, 『유서필지(儒胥必知)』 등이 그 예이다. 이 책들은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거나 편지 작성, 문서 작성 등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사상을 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식층의 문화를 자기화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⁸⁾ 또한 <제일기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경화연>과 같은 청(淸)의 재학소설(才學小說)이 수입되어 읽힌 것도 19세기 소설에 지식

2010, 99~131면. <두껍전>에서 보이는 지식을 당대 사대부들이라면 누구 알 수 있어야 하는 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의 지식이라고 보았다.

17) 그 근거로 주석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전고나 어구를 설명하기 위해 주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설을 설명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당대 대하소설 독자들에게 교양적 지식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민, 위 글, 118~120면.

18) 류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 출판」, 『고전문학연구』34, 2008, 248면.

이 수용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 조선사회의 지식 유통과 지식에 대한 관심은 소설의 변화를 끌어낸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변화를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옥선몽>, <삼한습유>와 같이 소설에 지식을 적극적으로 삽입하여 소설을 읽는 사람에게 지식정보를 주면서도, 동시에 소설이나 열(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소설에 ‘지식’이 수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소설에 지식이 수용됨으로써 소설이 사유의 장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새로운 서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다방면의 전문서적을 수용함으로써 박람(博覽)에 대한 독자들의 강력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¹⁹⁾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옥선몽>, <삼한습유>, <명행정의록> 등의 소설이 보여주는 지식의 범위는 불가, 도가는 물론 역사, 한시까지 포괄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지식적 요소들이 작품의 서사와 모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사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두껍전>, <장끼전>²⁰⁾도 고전 작품의 전고를 끌어오거나 지식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상층 지식이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19세기의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삼한습유>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 소설의 역할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9) 서정민, 위 글, 164면.

20) 정환국은 “나로 하여금 달게 먹고 태공과 같이 오래 살고, 태백 같이 상천하여 태을 선관 되오리다”와 같은 글쓰기에 대해 이러한 현상 자체가 유머러스하다고 하면서, 이를 상층과 하층의 소통의 결과 내지는 탈계층성의 문제로 보고, 상층의 고급 전고를 저급한 하층이 전유함으로써 일어나는 생체기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전고 활용은 방각본이나 판소리계에서 익숙하게 이루어져 오던 것으로 지식이 확산된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36, 275면.

3.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 소설의 역할

1) 새로운 지식 형성의 예, <삼한습유>

<삼한습유>는 1814년 죽계 김소행이 40대 후반에 창작한 소설이다. <삼한습유>는 숙종 28년(1702년)에 경상도 선산에서 죽은 향량이라는 평민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개가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자 죽음을 선택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향량은 죽은 뒤에 열녀 정려를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조구상을 비롯한 문인들에 의해 열녀전으로 입전되었다. 김소행은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열녀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면서 열녀를 재가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감행하였다. 열녀의 재가 문제는 유교이념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한 여성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소행은 조선 대신 신라를 배경으로 하고, 향량이 다른 몸으로 환생(幻生)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삼한습유>는 향량이 살아서 겪은 질곡을 서사적으로 생생하게 형상화되는 한편, 재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의론을 통해 재가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삼한습유>를 지식 형성의 예로 주목하는 이유는 18세기의 백과전서적 지식 경향과 진보적인 의식을 수용해서 새로운 의식의 지평을 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전기(傳奇)를 비롯한 기존의 소설 양식을 수용하고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열녀의 재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 둘째는 마도로 대변되는 숙명 또는 운명에 도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열녀 향량의 재가 문제를 보자. 향량의 재가 문제를 둘러싼 토론, 향량의 나이를 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토론 과정에서 작가 김소행은 자신

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대신, 유불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토론하게 해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은 재가의 허락이다. 이는 중세의 지식을 통해 중세의 이념을 벗어나는 논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량이 처음 혼처를 구할 때 어질지만 가난한 동쪽 집 자제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가난한 집에 딸을 시집보낼 수 없다는 어머니의 고집으로 할 수 없이 부자인 서쪽 집 자제와 혼인했다. 동쪽 집 자제인 효렴도 부인이 일찍 죽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향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문을 써서 조문하였다. 이 글에서 효렴은 향량의 죽음을 애도하며 “남자가 가셨으니 다시 무엇을 바라리오?”라고 하면서 “어두운 방에서 천년토록 지내자니 밤만 더욱 긴데 백년 후에 그 방에 돌아갈 자는 누구인지? 제가 복이 없어 남자와 맺어질 좋은 기회를 잃었군요.”라고 안타까워한다. 그날 밤 향량이 효렴을 찾아온다. 그리고는 자신을 ‘의열녀’인 이무개라고 소개한 뒤 효렴의 이름을 우러른 지 오래 되었다고 하고 “군자를 생각하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마음이요, 죽어서 못 잊는 것도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인네는 뒤를 따르는 법이지 앞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글을 지어 손수 제를 지내주는 것에 감격하여 다시 인사를 드린다고 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원컨대 저승의 사람이지만 못 다한 인연을 다시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상제에게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았지만 늦게 온 것은 부부 사이는 삼가지 않을 수 없는데다 몸이 이미 허물어지고 환영만 남아서 인간 세계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였다고 한다.²¹⁾ 이 장면은 생사가 갈린 뒤에도 서로 잊지 못하던 남녀가 만나서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최치원>이나 <만복사저포기>에서 처음 남녀가 만나는 장면과 유사하다. 그러나

21) 『삼한습유』(조혜란역), 72~79면.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같은 애정전기가 바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비해 <삼한습유>는 바로 향랑과 효렴이 귀신, 천지도수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인간세계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효렴은 바로 어떤 몸으로 온 것이냐고 묻고, 향랑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은 없다고 하며 귀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죽은 몸으로 어떻게 결혼이 가능한지를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²²⁾ 그럼에도 효렴은 선뜻 믿지 못하고 “거짓말이 아니겠지요?”라고 확

22) “이 몸이 장차 인간과 짝짓게 되자 상제께서 윤회대성(輪回大聖)에게 몸을 돌려주라고 명하시니, 대성이 생명과 혼을 돌려주는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정신을 단련하고 호흡을 이끄는 방법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물로 닦고, 바람으로 불게 하니, 피부가 매끄럽게 되었으며, 모르는 사이에 살풋 잠든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에 대성이 이 닦았다고 아뢰니 태미천군(太微天君)으로 하여금 신통한 비방을 섞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오장(五臟)이 생겨나고 뼈가 옥같이 되었습니다. …… 그러자 곧 또 피를 모으고 살을 키우며 진액을 내고 굳게 해서 바탕을 회복시켜 태에 돌리니, 지난 날 살아 있었던 때보다 훨씬 나왔으며, 말하는 것과 몸놀림도 예전에 비해 민첩해졌습니다. 이 몸은 진정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구름을 타고 안개 속에 놀며, 가마를 타고 세상의 끝에까지 다니며, 하늘보다 뒤에 없고 해, 달, 별을 시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곧 이전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이 몸을 인간세상에서 바꾸어 그 뼈와 살, 피부를 바꿨으니, 부모, 형제, 고향 친척들에게는 내 마음에 끝내 미안함이 있습니다. 비록 이 몸을 바꿨다 할지라도 나이는 같으니 부부로 함께 늙는 것은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깊은 밤에 문을 두드려 남자에게 잘 곳을 빌리는 일을 할 수는 없지요. 부탁이니 이 말에 따라 주세요. 낭군께서 옛 감정을 생각하셔서 새로이 친히 육례를 행하시고 날을 잡아 혼인을 하신다면 저는 마땅히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저를 데리러 오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대의 뜻은 어떠하신지요?”(孝廉釋然曰, 昔夫子不言神, 故後世無徵, 人各其見. 賈生前席之對必有高見, 而史無其傳, 僕常恨之. 今遇天難, 願畢其說, 敢問娘子所以爲神者何方之依?) 女曰, “人之死也 纔過三官已爲飄散, 恰如薪盡火滅. 惟冤之人初逝太陰, 將過三官也. 太一守尸, 三魂管骨, 七魄衛肉, 胎靈錄氣, 心靈精英飛越周流, 能觀靈驗示威赫, 上下縱姿. 故妾之始死, 能現相人世者此也, 非如武家花月之妖, 不敢見狄梁公也. 及以此身將配人間, 則帝命輪回大聖使之反形, 大聖祇主往生還魂. 本無鍊精導息之方, 乃以神水洒之, 業風吹之, 肥膚堅凝, 隱然成假寐之人. 於是, 大聖告以技盡, 乃令太微天君, 雜試神方. 於是, 五臟自生, 白骨如玉, ……於是, 卽又收血育肉, 生津結液, 復質反胎, 還勝於昔日未

인하고 향량이 있을 집을 천상에 지을 것인지, 지부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지을 것인지, 날씨는 언제로 잡을지 어디에서 맞을지를 하나하나 묻는다. 그러자 향량은 설명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병통이라고 하며 다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만복 사저포기>의 양생이 처음 여자를 만난 뒤 사람인지 귀신인지 의심하면서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향량이나 효렴은 쉽사리 정념에 빠지는 전기적 인간과 달리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일일이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지적 경향이 강한 인물들이다. 이는 독자들이 가질 만한 의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효렴을 만난 뒤 향량은 후도부인에게 이유를 말하고, 천제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 결혼하게 해 달라고 청한다. 후도부인이 시부(十府)의 여러 왕과, 삼원(三元), 원로들을 청해 묻고, 천제는 여러 성인, 신선, 스님, 유자, 목자를 초칭해서 묻는다. 지장왕은 찬성하고, 관음보살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괴로운 것인데 왜 굳이 옛 모습에 매여 인간의 수고를 다시 하려 하느냐고 묻고, 섭제목모, 천태신고 등은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하며 예를 논할 수도 없다고 한다. 한편 장손홍, 목자, 양주, 금속여래 등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데 예를 들어 목자는 예는 일에서 나오니 일이 지극하다면 일을 행하면 된다고 하면서 청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고, 양주는 남의 혼인에 무슨 상관이나고 하면서 목자와 양주가 논쟁을 벌인다. 이 모든 논란 끝에 공자가 예에 합당하다고 하면서 향량은 음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향량의 혼례가 결정된다. 이를 보

死之容，而言語動作比前如敏。此身眞能入水不沉，入火不焦，乘雲游霧，騰駕八荒，後天而老，凋三光矣。然而此身便是前身不一，換此身於人世，易其骨肉肥膚，父母兄弟鄉姓親族，則於我心終有所未安。雖換此身，年歲相符，偕老可期。女子之身不可昏夜叩門借宿男子，請從此辭。郎若念舊感，新親行大禮，卜日成親，則妾當灑掃堂宇以待親迎。郎意若何？”，『삼한습유』, 83면.

면 공자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비친다. 이는 향량의 재가에 대해 가장 반대할 사람이 공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김소행은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짓지 않고 장자로 하여금 유가, 묵가, 선가, 석가는 모두 도를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도가 있다고 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게 한다.²³⁾

천상회의에서 환생과 재가가 결정되었지만 작가는 한 번 더 향량의 재가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비난을 삼시충(三尸蟲)을 통해 하게 하고²⁴⁾, 여기에 대해 사마천이 향량을 변호하게 한다.²⁵⁾ 그리고 향량의 나이를 몇

23) “무릇 가히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겨우 명칭이나 얻은 것은 곧 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가, 묵가, 선가, 석가는 다같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까닭으로 같지 않고, 같지 않은 까닭으로 사람에게는 각기 도가 있습니다.(夫道可道非道也。纔有名稱，便不是道。故儒墨仙釋同歸於失，失之故不同，不同故人各有道.)”, 『삼한습유』, 115면.

24) “원컨대 상제께서는 향량의 마음씨가 바르지 못하고, 행실이 치우쳤으면서 고집 세고, 거짓된 말로 변명하는 일을 하지 못 하게 하십시오. 무릇 밤중에 남자에게 달려가서 스스로 혼인 약속을 맺은 것은 음란한 것이고, 이를 때문에 나이를 무릅쓰고 구태여 몸을 바꾸고자 한 것은 사기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군자로서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자기 무리를 늘려서 열녀의 떳떳한 정전을 편의대로 만들었습니다. 천하가 모두 괴이한 귀신이요 미친 여자라고 지목하기를 폐하게서만 모르고 계십니다.(願帝母以香娘心術不正，行僻而堅，言僞而辯。夫夜奔於士，自行媒約，淫也。因名冒齒，堅要換身，詐也。有一於此，難免君子之誅，....欲以廣樹黨援，便作烈女之常典，天下皆目之以怪鬼狂女，而獨陛下不知耳.)”, 『삼한습유』, 158~159면.

25) “지아비는 완악하고 시어미는 구박하여 쫓겨나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끝내 원망하는 말이 없었으니 충(忠)이요, 부모에게 돌아가서도 지난 일은 낮빛에 드러내지 않았으며 뜻을 두어 삼년상을 마쳤으니 효(孝)이며, 자신의 몸을 바쳤으니 의(義)이며, 남편을 구하였으니 절(節)이며, 반드시 애도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뒤에 가서 보았으니 예(禮)이며, 스스로 중매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니 신(信)이며, 그 몸을 더럽히지 않고 다른 세상에서 인연을 맺었으니 정(貞)이며, 내가 그러면 남도 그렇겠거니 여겨 다른 사람에게도 생각이 미쳤으니 인(仁)입니다.(夫頑姑瞽 至於棄絕，而終無怨言，忠也，歸於父母，而不以前事形於色作於意，終喪三年，孝也，殺身，義也，救夫，節也，必待弔祭而後王見，禮也。不嫌自媒，信，不亂其身而卜緣他世，貞，推已及人，欲其同樂，仁.)”, 『삼한습유』, 159~160면.

살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였다. 이 문제를 놓고 숙손통과 노양생이 토론을 벌이는데 노양생이 귀신은 몸이 없으니 나이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향랑이 죽은 뒤 삼 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다음 마군과의 전쟁 부분에서 지식이 수용된 양상을 보자. 향랑과 효렴의 혼례를 방해하는 존재로 마왕이 등장한다. 마왕은 천제와 같은 때 태어나서 힘을 다투는 존재다. 마왕은 죽이기를 좋아하고 살리기를 미워하며, 일을 이루는 것을 싫어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로 한마디로 일을 방해하는 존재이다.²⁶⁾ 마왕은 인간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병법에 관한 지식들이 제시되며, 마왕이 이기심성을 설명하고, 관음보살이 남녀의 즐거움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관음보살이 남녀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은 남녀의 몸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음양의 기, 남녀의 정 등을 통해 장황하게 전개된다.²⁷⁾ 여기서 전개되는 내용은 음양론에 입각해 있

26)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는 죽이기를 좋아하고 살리기를 미워했으며 일을 이루는 것을 싫어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서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시기하여 미워하고, 간사하고 성내고 악하고 혈뜯고 비뚤어지고 속이는 무리들은 곡진하게 비호하였으며, 천재지변, 시해를 마구 일으키고, 분열시키거나 서로 얽히게 만드는 일 등을 온갖 방법으로 하니, 여러 가지·여러 방향에서 생겨났다.(其於物也。好殺惡生，惡成好毀，人人之彥聖，媢嫉而惡之，奸回夔慝譴邪欺負之徒，曲全而庇護之。其興作灾妖□害，離析糾結萬端，不一不方.) 『삼한습유』, 214~215면.

27) “보살이 말하였다. “여래께서는 늙도록 홀아비로 지내셔서, 실제의 이치를 모르십니다. 제가 마땅히 여러 사람을 위해 설명을 해 드리지요. 무릇 사물의 교감으로는 남녀의 일만한 것이 없습니다. 젊어서는 더 심한데, 느낀다는 것은 정이 엷(희)는 것입니다. 『주역』에 말하기를 ‘남녀가 정기를 엷어 만물이 생겨난다’고 하였으니, (이는) 남녀가 정기를 엷을 때가 곧 만물이 생겨나는 순간임을 말한 것입니다. 남자는 정기를 주관하고, 여자는 피를 주관합니다. 남자는 정기가 성해지면 아내를 생각하고, 여자는 피가 성해지면 남편을 생각합니다...배꼽은 배 가운데에, 상초 아래, 방광 위에 있고, 오장이 경락에 연결된 것은 모두 등에 있는데 모두 배꼽에 묶어 있습니다.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못별이 반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배꼽(臍)이라는 말은 고르게 한다(齊)는 뜻으로, 장차 배꼽으로 고르지 않은 바를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 밑으

으며 성에 대한 새로운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녀의 몸의 특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성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관음보살을 통해 남녀의 일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2) 새로운 지식 형성 장으로서의 소설

<삼한습유>가 도달한, 열녀의 재가를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소설이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장의 역할을 하게 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19세기 소설의 동력으로서 지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먼저 김소행이 작품 말미에 쓴 ‘지작기(誌作記)’를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김소행은 자신의 창작 동기를 밝히는 지작기의 첫 부분을 향량의 죽음은 원통하기 그지없다(冤矣甚矣)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따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창작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그 자취를 좇아보면 스스로 평변박식하다고 자부해도 세상에 그 재주를

로 다섯 마디 아래에 기이한 것이 있어 배꼽이 되었지요. 배꼽으로부터 다섯 마디 밑에 기이한 것이 있어 음과 양으로 나뉘는데, 남자 형체를 한 것과 여자 형체를 한 것이 안으로는 오장(五臟)의 끝이면서 밖으로는 한 몸의 반이지요.(菩薩曰, “如來老嫗, 不知實理. 吾當爲衆人開說. 夫物之交感者, 莫若男女, 而少者又甚焉. 感者, 情之構也. 易曰, ‘男女構精, 萬物化生’, 言男女構情之際, 卽萬物化生之時也. 男子主精, 女子主血, 男子精盛則思妻, 女子血盛則思夫... 臍中於腹, 在於上焦之下, 膀胱之上, 五臟之繫絡, 皆在於背, 而總攬於臍, 如北辰居其所, 而衆星拱之. 臍之爲言齊也, 將以齊其所不齊也. 自乳以下五寸, 有奇爲臍, 自臍以下五寸, 有奇有分陰分陽, 而形男形女者, 內以五臟之末, 外以一身之半”), 『삼한습유』, 300~302면.

시험해 볼 데가 없으니, 가슴 속에 품은 기이함을 한 번 토해 내어 보고 싶어서 이에 의열녀를 잠시 빌려, 천하를 놀라게 하고 만세에 드러내고자 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적도 없고 능히 이를 수도 없는 일을 한 것이다. 천지만물을 만들어내는 조화를 희롱하고, 원기(元氣)를 눈 아래로 보며, 위아래를 흔들어 대고 고금을 진동시키니 전도되지 않은 것이 없다.²⁸⁾

지금까지 이 대목은 <삼한습유>의 창작 동기, 혹은 소설 창작론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김소행은 작품을 통해 광변박식을 토해 냈으며, 조화를 희롱하고 원기를 눈 아래로 보았으며, 위아래로 흔들어댄 결과 전도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작가가 <삼한습유>를 지식과 변론의 장으로 삼아서 조화와 원기 같은 근본적인 것들을 희롱하고 눈 아래로 보았으며 그리하여 모든 것을 전도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열(烈)이라는 개념이 전도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삼한습유>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당대의 쟁쟁한 지식인 문사들의 서문과 발문을 통해 그 논쟁을 끌어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소설이 지식 형성의 장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나가는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김소행이 소설에 이러한 지식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그의 사회적 위치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화세족이었던 홍석주는 필기류 저술 등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던 반면, 김소행은 자신의 지식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작기’에서 말한 바 의열녀를 빌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언급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지식이 달리 구성되는 예를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28) “迹其以殆，自負宏辯博識，而無所試其才於世，欲思一吐出胸中之奇，乃假託於義烈女，將以駭天下表萬世，行未始有莫能成之事。戲造物傲元氣，波蕩上下，震動今古，莫不顛倒。” 『삼한습유』, 414~416면.

김소행과 오랜 교분이 있었던 연천 홍석주는 <서의열녀전후>에서 객과의 문답 형식을 빌어 <삼한습유>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객의 입을 빌어 ‘삼교를 드나들고, 백가(百家)를 포괄하였으며, 본받을 만한 말은 경전에 뿌리를 두었고, 실제 있었던 말은 역사서를 참고했으며, 고상한 말들은 『장자』를 짚할 만하고, 원망 어린 말은 <이소>를 이을 만하며, 그 박식함은 『유양잡저』보다 자세하다’고 평가했다.²⁹⁾ 이는 앞서 살펴본 바 <삼한습유>에 동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의 성격을 적절히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석주는 당시 사람들이 <삼한습유>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들에 대해 계속 질문하게 하고, 그것을 해명한다. 유가를 억누르고 불가를 존중하며, 마도는 돕고 유가를 회화화한 것 때문에 못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장자만큼 유가를 희롱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 김소행이 유가만 회화화한 것이 아니라 석가세존이나 관음보살도 희롱한 것이라고 변론해 주고³⁰⁾, 이비, 삼모나 백희, 경강 같은 어진 분들을 욕보인 것이 석연치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또 아니라고 한다. 이는 홍석주가 김소행의 유, 불, 도에 대한 태도 역시 공감한다는 것이다. 홍석주는 계속되는 객의 질

29) “出入三教, 包括百家, 法語根經, 實語徵史, 危言配莊, 怨辭紹騷. 其博也宛委西陽.”, 『삼한습유』, 420면.

30) “그렇다면 어찌서 유가를 억누르고 불가를 존중하며, 마도는 돕고 유가를 회화화했나 해서 그렇게 못마땅한 건가? …… 옛날에 유가를 업신여겨 유가를 희롱한 사람으로는 장주(莊周)와 같은 사람이 없네. 그가 책을 쓸 때 마지막 편에서 육경을 높이고 백가를 내림에 자기도 관음, 노담과 함께 백가의 열에 자리매김을 했는데, 유독 공자만 빼졌는가? …… 비록 석가세존이나 관음보살이라도 그 날카로운 부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유독 공자의 문중에만 미치지 않을 것인가? 나는 그가 유가를 누르고 불가를 존중하는 건 보지 못 했네.(然則豈以其抑儒而尊釋, 援魔而戲儒歟? 曰, …… 古之侮儒, 而以儒爲戲者, 莫如莊周. 及其著書而終篇也, 尊六經而降百家, 已則與關尹老聃, 皆序於百家之列, 而惟孔子不與焉? …… 雖世尊觀音不能免其利嘴, 而獨不敢及於孔氏之門焉? 吾未見其抑儒而尊釋也.)”, 『삼한습유』, 424~425면.

문에 결국 향량의 재가 부분에 대해서만은 석연치 않다고 대답한다.

홍석주는 무릇 세상사람 중에 전할 만한 사람이 많은데 하필 향량을 택한 것은 열 때문이고, 열녀들이 많은데 하필 향량을 택한 것은 그 불우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김소행이 향량은 이미 죽었는데도 동쪽 집 효렴의 한 장 제문에 감동을 받게 해서 효렴이 있는 곳으로 어두움을 타고 몸을 낮춰 찾아와 스스로 중매 하게 한 것은 좋지 않은 행실이라는 것이다. 결국 홍석주는 김소행이 향량을 욕되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량의 불우를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는 객의 질문에 홍석주는 여자로 태어나서 두 번 욕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則吾誠不欲使香娘, 重辱于女子之身也)³¹⁾고 답한다. 여기에서 김소행과 홍석주의 다른 지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홍석주는 태를 바꾸고 모습을 바꾼 것에 몹시 구차하다(不得已而歸之於托胎換身, 其苟也亦甚矣)³²⁾고 보았다. 열녀의 개가를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화세족인 홍석주와 서얼 출신으로 불우한 삶을 살아야 했던 김소행과의 신분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홍석주는 향량의 불우에 공감하지만, 열녀로서 개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김소행은 향량의 불우에 공감하기 때문에 개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공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교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홍석주와 김소행이 달라지는 지점도 바로 이데올로기에 대해 도전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며, 그 차이는 이들의 신분적 위치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삼한습유>는 향량의 죽음과 환생, 결혼 등의 서사와 환생과 결혼을 위한 의론이 교직된 작품으로 특히 의론 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지식을 활용했다. <삼한습유>에 활용되는 지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31) 『삼한습유』, 433면.

32) 『삼한습유』, 431면.

그러나 지식의 동원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은 열녀의 재가라는 조선사회의 지배 이념에 대한 도전이었다.³³⁾ 그냥 과부의 개가도 아니고 열녀로 정려까지 받은 여성을 개가하게 했다는 것은 비록 환생(幻生)을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교 이념에 대한 강력한 도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음의 예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박지원, 정약용, 성대중 등이 열녀나 수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드러내놓고 재가를 허용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사족 여성의 경우는 영조대 이후 정절을 더욱 강조하여 정절과 관련한 문제를 강하게 체벌할³⁴⁾ 정도로 여성의 의무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럼에도 개가의 문제는 19세기 문학에서 불편하게 등장한다.³⁵⁾ <변강쇠가>, <장끼전>, <텐동어미화전가>에서 먼저 죽은 남편들은 남은 아내에게 개가를 못 하게 하거나, 체험을 통해 개가를 만류하고 있다. 따라서 개가는 여전히 불편한 문제로 남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삼한습유>는 열녀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장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량이 개가를 원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상제나 후토부인 같은 천상 존재들의 도움이 있었던 반면, 마도(魔道) 편에서 선 마군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다. 또한 김소행은 모든 열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재가가 결정된 뒤 향량은 정의녀, 사씨 등 다른 열녀들을 찾아가서 함께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권유하지만 이들은 모두 거절한다. 향량이 이런 사실을 부인에게 말하자 부인은 이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부부의 즐거움을 알지

33) 장효현은 이를 열(烈)의 재해석을 통한 脫中世의 작가의식이라 명명하고, 중세적 이념과 제도에 굴종되는 ‘烈’이 아니라, 중세적 이념과 제도를 뛰어넘는 ‘참된 사랑의 추구와 실현’이 진정한 ‘烈’임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효현, 앞 논문, 400면.

34) 정궁식,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토론문,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2011, 494면.

35) 정환국, 앞 논문.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열녀를 하나의 부류로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는 열녀 이데올로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 여성의 개가를 다루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엄청난 무게를 받는 문제이며, 모든 열녀를 하나로 취급해서 간단히 해체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적어도 열녀의 재가에는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장구한 역사를 통해 전승된 열녀전의 플롯을 해체하고 새로운 플롯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설정임을 의미한다.

사실 플롯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의 삶의 역정이 플롯으로 구조화된 것이 소설이라고 본다면 새로운 플롯은 새로운 삶의 형식을 창출한 것이며, 이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제로 한다. <삼한습유>에서 보여주는 열녀의 재가는 천상의 힘을 빌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삶은 지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형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플롯은 향량의 불우에 대한 강력한 공감으로 결구되었고, 이 플롯에 설득력을 주는 것은 지식에 근거한 논리였다고 생각된다. 그 점에서 <삼한습유>의 경우 공감과 지식은 새로운 플롯을 창출하게 해 준 동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삼한습유>는 중세의 지식으로 중세의 주요 이념을 내파(內破)한 예를 보여준다. 갑오개혁으로 과부의 재가가 비로소 허용되었다. <삼한습유>는 그에 앞서 열녀의 재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소설이 지식과 만나면서 이루어낸 것으로 19세기 문학의 중요한 성취라 하겠다.

그런데 <삼한습유>는 외관상 새로운 지식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세 동아시아의 공동문어인 한문으로 창작하고, 중세의 장르인 열녀전(烈女傳)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중세의 지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근대와의 만남이라

는 단절적 사건이 아니라 조선사회가 가진 동력으로 이러한 변화된 관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삼한습유>에 내재한 이러한 동력은 중세를 해체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세기 신소설이나 근대소설이 신문명, 신지식 형성의 장으로 역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과정이 이미 19세기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근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세가 어떻게 해체되었으며, 중세의 무엇이 해체되었으며, 그 해체의 동인이 무엇이었으며, 해체나 이행의 주체는 누구였는가가 먼저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세 해체의 동인이 근대성 형성의 동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9세기는 중세 해체 과정을 보기 위해, 근대성 형성 과정을 보기 위해, 혹은 과정으로서의 근대를 보기 위해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절의 이면에 흐르는 연속성의 저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글은 19세기 소설의 동력의 하나로 지식에 주목하고 소설 속에 드러난 지식의 다양한 양상들을 살핀 뒤 공감과 지식 형성의 장으로서 <삼한습유>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세기에는 <삼한습유>, <옥선몽>과 같은 한문소설뿐만 아니라 <명행정의록> 같은 국문장편소설, <두껍전> 같은 우화소설 등에 두드러지게 지식이 수용되어 있다. 이는 19세기에 지식 정보의 유통과 정리가 폭넓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글의 관심은 이러한 지식들이 소설 속에 얼마나 수용되었는가가 아니라, 소설 그

자체가 지식을 수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장이었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소설이 19세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고 공감하는 장(場)이 되었고, 지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따라서 근대성 형성이 전근대 시기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입증하고자 했으며, 그 예로 <삼한습유>를 들었다.

<삼한습유>는 한문으로 씌어졌고, 전(傳)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중세의 지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 근대성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소행은 <삼한습유>를 통해 열녀전의 플롯을 바꾸어버렸다. 필자는 이를 열, 열행, 열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교 이념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근대로의 추동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20세기 근대소설은 외관상 19세기 소설과 연속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삼한습유>에서 보여준바 소설이 지식 형성의 장(場), 사유의 장으로 된 예는 근대소설과 장르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설은 지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었다. 중국의 재학소설이나 조선의 19세기 한문장편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의 소설도 지식을 적극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플로베르의 희곡소설 <성 앙투안느의 유혹>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은 대화를 통해 당시의 지식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소설이 근대 이후 철학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담론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삼한습유>는 출판을 통해 유통되지 못했고, 한문으로 창작되어 대중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갖는 의의는 바로 소설이라는 장르를 공감과 지식 형성의 장으로 만들면서 중세적인 지식을 통해 중세의 이념인 열을 해체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9세기 소설의 동력이자 근대로 향한 추

동력이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19세기 한문소설을 보면서 19세기 소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지식, 이념, 섹슈얼리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 글은 전의 작업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지식의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지식과 소설의 연관을 작가층과 관련해서 다루지는 못했다. 이 문제는 19세기 경화세족의 장서(藏書), 연행(燕行), 해외교유, 총서류 저작 등과 관련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19세기 지식 확산과 공유 등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기동(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500면.
김소행, 『삼헌습유』, 조혜란역, 200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453면.
-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모색』, 보고사, 2011, 1~293면.
김경미, 『옥선몽의 성격과 작가의 소설의식』, 『국어국문학』109, 1993, 293~315면.
류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 출판』, 『고전문학연구』34, 2008, 229~265면.
서경희, 『〈옥선몽〉 연구 : 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15면.
서신혜, 『김소행의 글쓰기 방식과 삼헌습유』, 박이정, 2004, 1~326면.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242면.
장예준, 『19세기 소설의 ‘지식’ 구성의 한 양상과 ‘지식’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55, 2010, 99~131면.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1~802면.
전상욱, 『완관 춘향전의 변모양상과 의미』, 『판소리연구』26, 2008, 201~228면.
전성운, 『19세기 장편한문소설과 청말 재학소설의 지식 제시 방식-〈옥선몽〉(玉仙

夢)>과 <경화연(鏡花緣)>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58, 2008, 395~412면.

정궁식,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토론문,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2011, 491~497면.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36, 253~287면.

조혜란, 『19세기 서얼 지식인의 대안적 글쓰기, <삼한습유>』, 소명출판, 2011, 1~285면.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27, 2009, 201~229면.

ABSTRACT

Novel's Possibility as a Field of Knowledge Formation and Thinking
 - Focusing on *Samhanseupyū*[三韓拾遺]

Kim, Kyung-mi

This paper takes notice of knowledge as a motivator of novels in the 19th century. Thus, in this paper, various aspects of knowledge in novels have been investigated at first. Then, *Samhanseupyū*[三韓拾遺] is mainly referenced to show facets of the novel as a field of knowledge formation and thinking.

In the 19th century, knowledge has been accepted in many novels, not only novel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such as *Samhanseupyū*, *Oksunmong*[玉仙夢], but also in long term novels written in Korean character such as *Myunhangjeongyilok*[明行正義錄] and fable novels such as *Dukkupjeon*[두껍전]. This phenomenon is related to the trend of the era, which can be explained as "distribution and arrangement of knowledge". This research do not simply focus on the amount of knowledge accepted in the novel, but aims to prove that novel itself became the field that both accepts existing knowledge and forms a new knowledge, and accordingly, it activates the implosion of the medieval ideology.

The main text, *Samhanseupyū*, adopts a traditional format, *Yölno* biography[烈女傳], however, it creates a brand new plot which ends up with the remarriage of *Yölno*[烈女]. The factor that makes the new kind of plot persuasive is the logic, based on knowledge. In this point, knowledge in *Samhanseupyū* can be evaluated as a motivator to the creation of a new plot. In other words, *Samhanseupyū* shows an example of implosion of the medieval ideology through medieval knowledge. As the novel encounters with knowledge, this kind of implosion was possible, so *Samhanseupyū* is an important literary achievement in the 19th century. Furthermore, *Samhanseupyū* is also important in a sense that this

phenomenon contributes to the rise of modern novel.

Key Words *Samhansopyu*, Yŏlno[烈女], knowledge, knowledge formation, novel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漢文小說], the 19th century, modernity

논문투고일 : 2012. 10. 01

심사완료일 : 2012. 11. 26

게재확정일 : 2012. 12. 02

